

# 노부모의 금전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

Financial transfers from elderly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고선강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h, Sun-Ka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고찰, 금전이전 측정방법 고찰 | V. 결론 및 제언<br>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

## 〈Abstract〉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impact of parent's and child's incomes on financial transfers from elderly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and to study other factors influencing financial transfers from parents to children. Analyzing data from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which provides long-term observations of financial transfers, the current study finds strong positive effects of parent's income on financial transfers from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In terms of determinants of financial transfers, the results of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uggest that child's education, child's marital status, and sibling siz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parent-to-child financial transfers.

### I. 서론

최근 미국에서는 확대가족내의 가계간 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공적부조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대가족내의 자원이전이 공적부조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Schoeni, 1997)

\* 이 논문은 2002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가족 내의 자원이전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특정 가계를 위한 정부의 소득보조금이 목표하는 가계가 아닌 다른 가계 (예: 결혼한 자녀의 가계)로 이전되어진다면, 정부정책의 의도와 효과가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확대가족내의 사적인 자원이전이 사적인 부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학계의 자각이 확산되면서 확대가족내의 가계간 자원이전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 미국의 많은 부모들이 성장한 자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들(McGarry & Schoeni, 1995; Soldo & Hill, 1995)이 발표되었고, 부모들의 성장한 자녀에 대한 금전이전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변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Cox & Rank, 1992; McGarry & Schoeni, 1995; McGarry & Schoeni, 1997)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자녀의 대학교육비, 결혼비용, 주택구입비 등을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박재간, 1990), 부모의 금전이전은 자녀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뿐 아니라 금전이전의 동기에 따라 미래의 노부모부양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노인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확대가족내의 금전이전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신고전경제학파의 이타주의론(Becker, 1991)과 교환이론(Cox, 1987; Cox & Rank, 1992)이다. 실증적 연구들은 금전을 이전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의 경제수준을 두 이론을 검증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금전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주장(이타주의적 이론)과 부모가 나중에 자녀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여 경제적으로 더 나은 자녀에게 금전이전을 한다(교환이론)는 두 이론을 검증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의 일치하지 않은 결과들은 두 이론을 검증하는 지속적인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을

을 암시한다.

그러나 종래의 많은 연구들은 금전이전의 측정범위를 단기(예: 지난 1년)로 한정시켜서 금전이전의 생애주기적 측면을 누락시키는 단점을 보였다. 성장한 자녀에게 부모가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학교진학, 결혼, 주택구매 등의 생애사적 이벤트와 연관이 있는데(MacDonald, 1989), 단기간의 금전이전에 치우치는 선행연구들은 확대가족내의 금전이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금전이전의 단기 측정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여, 노부모의 금전이전 행동을 설명하는 동기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행해지는 금전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특히 부모와 성인자녀의 경제적 자원이 부모의 금전이전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고찰, 금전이전 측정방법 고찰

### 1. 이론적 배경

확대가족 안에서 특히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금전이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신고전경제학파의 이타주의론(Altruism Theory)과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이 있다. 이타주의론은 Becker(1991)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된 이론으로 가계가 아닌 가족을 경제적 의사결정의 단위로 본다. 이타주의론에서 '이타적'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데, '가'라는 사람의 복지증진(well-being)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용이 '나'라는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킬 때 '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타주의론의 가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가족 안에 이타적인 가장이 있고 이기적인 가족구성원들이 있는데, 가장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복지감 정도에 따라 자신의 복지수준이 영향을 받고, 가족원의 복지수준

은 이타적 가장의 복지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가족구성원들이 즐겁게 잘 살아야만 이타적 가장도 즐겁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Becker는 경제효용함수로 이 관계를 표현했는데 이타적 가장의 효용함수를 결정짓는 요소에 가족구성원의 효용함수가 포함되는 것이다. 오직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만 효용이 증대된다고 가정하면, 이타적 가장의 복지수준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가장 자신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각자의 소비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Becker는 부모를 이타적 가장, 자녀들을 이기적 가족구성원으로 가정하여 보상적 이타주의론(compensatory altruism)을 설명하였다. 보상적 이타주의론은 부모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이 수반되어야 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만 복지증진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타적 부모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에게 금전이전을 해서 그 자녀의 소비를 촉진시켜준다. 그 자녀는 소비를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고, 따라서 부모의 복지감도 증진된다는 것이다.

반면 교환이론에서는 기부자가 금전이전을 이용해서 수혜자로부터 미래에 되돌아 올 자원에 대한 흥정을 한다고 본다. 교환이론에서 상호호혜성은 개인간의 관계는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성립된다고 보는데, 돌아올 보상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장기적인 보상일 수도 있다 (Sabatelli & Shehan, 199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금전이전도 그것이 주는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이 더 클 때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부자는 수혜자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높은 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금전이전을 한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이타주의론과 교환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tonji, Hayashi와 Kotlikoff(1992)는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자료를 분석해서 이타주의론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타주의론에서 경제생활의 결정단위를 개인 또는 가계가 아닌 가족(확대가족)으로 규정했고, 따라서 확대가족의 소비생활은 가족구성원들이 각자의 경제수준 보다는 가족전체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했다. Altonji와 그의 동료들의 분석모델에는 경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총소득, 노동소득, 주택의 자산가치, 시간당 임금이 포함되었고, 가계의 소비를 측정하는 지표로 식품소비가 포함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구성원 각자의 경제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가계소비를 설명하는 유의한 요소들이었고, 이것은 확대가족내의 구성원들이 비록 다른 가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동일한 예산제약 하에서 소비를 한다는 이타주의론의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 경제생활의 결정단위가 가족이 아니라 가계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Bernheim, Shleifer와 Summers(1985)는 전략적유산상속모형론을 주장하면서 교환이론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들의 모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성장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설에 바탕을 둔다. 즉 자녀들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 중 부모에 대한 배려와 관심정도가 높은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자녀들은 상속받을 유산을 염두에 두고 부모에게 금전이전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에게 더 잘 하는 자녀에게 보상의 차원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녀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금전이전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즉 물려줄 재산이 있는 부모에게 더 잘 하게 된다는 것이다. Bernheim과 그의 동료들은 미국의 Longitudinal Retirement History Survey 자료분석을 통해서 성장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관심은 부모의 유산으로 물려줄 가능성이 있는 자산보유 정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여러명의 성장한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부모가 물려줄 재산(주식, 채권, 부동산)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부모방문, 연락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선행연구 고찰

### 1)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자원

확대가족 내의 금전이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그 대상을 부모와 자녀로 한정시켜왔다. 최근 들어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자원의 보유정도와 금전이전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McGarry와 Schoeni(1995)는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urvey(HRS)를 분석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균등하지 않은 금전이전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녀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에게 금전이전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McGarry와 Schoeni(1997)는 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AHEAD)의 분석을 통해서, 성인자녀에게 주어지는 부모로부터의 금전이전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1995년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McGarry와 Schoeni는 이 연구에서 성장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을 추정하는 로짓(logit) 모델을 분석했는데, 자녀의 소득이 낮은 범주에 속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는 경향이 높았다고 발표했다. McGarry(1999)는 최근 연구에서 자녀의 경제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좀더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부모로부터의 금전이전을 연구했다. 그녀의 연구모형은 자녀의 현재소득, 자녀의 주택소유의 유무 그리고 평생소득의 대체변수로 교육정도를 포함했다. HRS와 AHEAD의 자료를 분석하여 자녀의 현재소득이 낮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녀일수록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Pezzin과 Schone(1999)도 친부모자녀와 양부모자녀 간의 자원이전 연구에서 AHEAD의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의 금전이전 수혜기회가 많고 그 금액도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Cox (1987), Cox와 Rank(1992)는 성장한 자녀의 소득과 부모로부터의 금전이전 액수가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National Survey on Families and Households (NSFH) 자료분석을 통해서 수혜자의 노동소득이 높을수록 금전이전 액수와 금전이전 수혜 기회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는 교환이론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또한 MacDonald와 Koh(2002)는 최근 10년 간 한 가족 안의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금전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의 소득수준이 부모의 금전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2)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금전이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 부모만 생존에 있는 경우 부모가 모두 생존에 있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성인자녀가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이 더 크고, (McGarry, 1999), 독신인 자녀가 결혼한 자녀보다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이 더 큰 경향이 있다(McGarry, 1999; McGarry & Schoeni, 1997).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자녀들에게 금전이전을 할 확률이 높고 (McGarry, 1999; McGarry & Schoeni, 1997; Pezzin & Schone, 1999),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일수록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이 높다(Cox & Rank, 1992; McGarry, 1999; McGarry & Schoeni, 1995). 몇몇 선행연구들 (Cox & Rank, 1992; McGarry & Schoeni, 1997)은 자녀의 성별이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으나, Cox(1987)는 여성가장의 가계인 경우에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이 더 높

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 3.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금전이전의 측정

연구자들에게 공개된 미국의 대표성 있는 연구조사들 중에 확대가족내의 금전이전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있는 연구조사는 Health and Retirement Survey(HRS), 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AHEAD),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National Survey on Families and Households(NSFH), 그리고 Wisconsin Longitudinal Study(WLS)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금전이전 측정기간과 조작적 정의가 달라서 통합적 결과 도출의 어려움이 있다.

각각의 연구조사가 규정하는 금전이전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12개월 동안 미화 \$500이상을 받은 경우(HRS, AHEAD), 최근 10년 동안 미화 \$5,000 이상 받은 경우(AHEAD), 1년 동안 미화 \$100 이상을 대출, 기부, 또는 지원 목적으로 받은 경우(PSID), 최근 5년 동안 미화 \$500 이상을 대출 또는 기부로 받은 경우(NHFS), 18세 이후에 부모로부터 미화 \$1,000 이상 받은 경우(WLS)이다.

먼저 선행연구들의 측정기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 동안 행해진 금전이전만을 연구에 포함시킬 경우 금전이전의 특성-생애주기에 걸쳐서 특별한 생애이벤트(결혼, 진학, 주택구매 등)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둘째, 가족구성원간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대출과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구분 없이 금전이전에 포함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행동을 하나의 변수로 묶어서 연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측정범위의 최저선이 높은 경우(미화 \$5,000이상) 저소득층의 금전이전 행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금전이전의 측정에 있어서 생애주

기적 특성을 고려하고 대출과 단순금전지원을 구분하고 폭넓은 측정범위를 반영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 4. 연구문제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금전이전 측정에 관한 고찰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노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금전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이다. 특별히 본 연구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경제적 자원이 부모로부터 성인자녀에게 주어지는 금전이전에 미치는 효과에 중점을 둔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와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미국의 위스콘신 종적연구조사 (Wisconsin Longitudinal Study)이다. 위스콘신종적연구조사는 1957년에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하여 1965, 1975, 1992년까지 4차례의 설문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한 패널연구조사이다. 이 조사는 확대가족내의 금전이전에 관한 조사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계소득, 조사대상자 부모의 소득, 자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1957년 조사자료가, 자녀의 소득 측정을 위해 1974년과 1992년 조사자료가 사용되었다. 다른 변수들은 1992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은 위스콘신종적연구조사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적어도 부모 중 한사람이 생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는 ‘성인자녀’이며, 조사대상자의 부모에 관한 정보도 조사대상자를 통해서 수집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 수는 3,400이었고, 분석단위는 52세된 성인자녀(조

사대상자)와 그의 부모이다.

## 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모가 성장한 자녀에게 준 금전이전의 유무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인 자녀가 성장한 후에 부모로부터 미화 \$1,000 이상의 금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이전이 있는 범주(1)로 구분하였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미화 \$1000 이상의 금전이전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금전이전이 없는 범주(0)'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 중 부모와 자녀의 경제상태는 부모와 자녀의 소득정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금전이전)의 측정범위를 1957년부터 1992년까지로 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현재(1992년)의 소득을 분석모델에 포함시킬 경우, 금전이전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소득의 가감이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미국 정부에 보고한 1957년 소득세를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을 측정하였고, 자녀의 소득은 1974년 조사대상자인 자녀가 보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1957년 소득과 자녀의 1974년 소득은 각각 4분위(quartile)로 나누어서 범주화하였다. 통제범주는 1분위 범주이다. 또한 자녀의 소득변화도 측정하였는데, 자녀의 1992년 소득을 4분위로 범주화한 후에 1974년 소득범주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는 경우, 소득수준이 올라간 경우, 내려간 경우로 구분하여 다시 범주화하였다. 참고범주는 1974년과 1992년에 같은 소득범주에 들어간 경우이다.

기타 통제변수는 부모의 생존 및 결혼상태로 '부모생존 및 결혼한 상태', '부모생존 및 별거', '모 생존', '부 생존'으로 범주화하였다. 부모의 건강상태는 5점 척도 중 '아주 나쁘다'와 '나쁘다'를 묶고, '보통이다', '좋다', '아주 좋다'를 묶어서 범주화하였다. 자녀의 결혼상태는 '초혼이고 결혼한 상태', '재혼 이상 결혼한 상태', '이혼, 별거, 사별',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의 교육수준, 성별, 형제자매의

수는 연속변수로 사용되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확대가족내의 부모가 성장한 자녀에게 제공하는 금전이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모가 성장한 자녀에게 금전이전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범주형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때 경제적 상태 이외에 금전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통제를 위해서, 선행연구들(Cox, 1987; Cox & Rank, 1992; Couch, Daly, & Wolf, 1999; McGarry, 1999; McGarry & Schoeni, 1995; McGarry & Schoeni, 1997; Pezzin & Schone, 1999)에서 많이 고려되어왔고 그 영향력이 인정되어 온 변인들 중, 이타주의론과 교환이론에 기초하여 통제변수들을 선별 사용하였다. 부모의 생존 및 결혼상태, 부모의 건강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성장한 자녀의 교육수준, 성별, 자녀의 결혼상태, 형제자매의 수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본의 21%가 부모로부터 \$1,000 이상의 금전이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HRS와 AHEAD의 자료를 분석한 McGarry(1999)의 연구결과 보다는 약간 낮은 빈도이다. McGarry의 연구에서 표본가계의 약 29%(HRS)와 25%(AHEAD)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에게 \$500이상의 금전이전을 하였다. 변수 측정, 표본의 특성, 연구방법에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n=3400)

범주형 변수			백분율 (%)
부모가 자녀에게 준 금전이전	유		21
	무		79
부모의 1957년 소득	제1 범주	(0~\$3,600)	22
	제2 범주	(\$3,700~\$5,500)	23
	제3 범주	(\$5,600~\$7,400)	25
	제4 범주	(\$7,500~\$15,000)	26
	무응답		4
자녀의 1974년 소득	제1 범주	(0~\$11,000)	25
	제2 범주	(\$11,100~\$15,400)	23
	제3 범주	(\$15,500~\$20,100)	24
	제4 범주	(\$20,200~\$156,000)	25
	무응답		4
자녀의 소득변화 1974년 1992년 비교	동일 범주		40
	두 단계 상승		8
	한 단계 상승		21
	한 단계 하락		16
	두 단계 하락		11
	무응답		4
부모생존 및 결혼상태	부모생존/결혼		27
	부모생존/별거 또는 이혼		2
	모생존		59
	부생존		12
부모의 건강	건강하다		83
	건강하지 못하다		19
자녀의 결혼상태	결혼, 초혼		69
	결혼, 재혼		14
	별거, 사별, 이혼		13
	결혼 경험 없는 독신		4
자녀의 성별	남자		47
	여자		53
연속 변수			
부모의 교육수준	평균	표준편차	
	10.0	3.4	
자녀의 교육수준	13.5	2.2	
생존한 형제자매 수	2.9	2.1	

부모의 1957년 소득을 4분위로 나눈 결과 \$3,600 이하가 제1 범주에 들어갔고, \$3,600에서 \$5,500이 제2 범주, \$5,600에서 \$7,400이 제3 범주, 그리고 \$7,500에서 \$15,000이 제4 범주에 들어갔다. 자녀의 1974년 소득 또한 4분

위로 범주화한 결과 \$11,000 이하가 제1 범주, \$11,100에서 \$15,400이 제2 범주, \$15,500에서 \$20,100이 제3 범주, 마지막으로 \$20,200에서 \$156,000이 제4 범주로 구분되었다. 표본의 4%가 부모소득과 자녀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않았는데 '무응답'의 범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자녀의 소득변화를 살펴보면 40%의 조사대상자들이 1974년 소득이 해당되었던 범주와 1992년 소득이 해당되는 범주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 간의 소득을 비교했을 때 표본의 40%가 1974년과 1992년에 상대적 소득수준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본의 8%는 1992년 소득이 1974년에 비해서 두 단계 높은 소득범주로 분류되었고, 21%는 한 단계 높은 범주로 분류되었다. 반면 11%는 두 단계 하락된 범주에, 16%는 한 단계 하락된 범주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자들의 27%만이 부모 모두 생존에 있고,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는 부모 모두 생존에 있으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친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59%로 4가지 범주 중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친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도 1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가 52세에서 53세이기 때문에 모친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부모의 건강수준은 조사대상자의 19%가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고, 79%는 부모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좋다고 대답했다.

자녀(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 중 69%가 결혼한 상태이며 초혼이었고, 14%는 결혼한 상태이며 재혼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13%는 별거, 이혼, 또는 사별 한 상태였으며,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이 표본의 4%를 차지했다. 표본의 47%가 남성, 53%가 여성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평균 10년 표준편차 3.4년, 자녀의 교육수준은 평균 13.5년 표준편차 2.2년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생존한 형제자매 수는 평균 2.9명이고 표준편차는 2.2명이었다. 본 연구의 표본이 추출된 위스콘신종합연구조사가 195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과 연령 분포의 편차가 적다. 조사대상자의 최저 교육수준이

12년이기 때문에 편차가 적고, 연령분포 또한 52세에서 53세 (1992년 기준)로 매우 동질적이다.

## 2. 부모로부터 성인자녀에게 주어지는 금전이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인 부모자녀의 경제상태가 금전이전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분석모형은 부모와 자녀의 경제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로 부모의 1957년 소득과 자녀의 1974년 소득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최근 1년 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진 금전이전을 측정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장기간(1957년~1992년)동안 행해진 금전이전에 관한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1992년 조사된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변수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측정된 소득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논리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1957년과 1974년 측정된 소득이 변수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분석모델에는 자녀의 1974년 소득 대신 자녀의 1974년 소득과 1992년 소득을 비교하여 그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포함되었다. 보완적 이타주의론의 가설에 따르면 자녀의 경제적 재난 또는 소득수준의 하락이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시점의 상대적 소득변화와 금전이전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통해 보완적 이타주의론을 검증해 보고자 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경제수준과 금전이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모델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주는 금전이전에 영향을 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이 제1 범주에 속하는 성인자녀들과 부모의 소득이 제4 범주에 속하는 성인자녀들을 비교했을 때, 제4 범주에 속하는 성인자녀들이 금전이전을 받는 경우가 2배 가량( $\exp(B)=2.061$  &  $2.072$ ) 높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부모가 자

<표 2> 각 변인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준 금전이전에 미치는 영향 (n=3400)

		분석모형 1		분석모형 2	
		B	exp(B)	B	exp(B)
부모의 1957년 소득 (참고범주: 제1 범주)	제2 범주	.104	1.109	.095	1.101
	제3 범주	.145	1.156	.145	1.157
	제4 범주	.723***	2.061	.729***	2.072
	무응답	.152	1.165	.152	1.164
자녀의 1974년 소득 (참고범주: 제1 범주)	제2 범주	-.001	.999		
	제3 범주	-.044	.957		
	제4 범주	.032	1.032		
	무응답	-.401	.670		
자녀의 소득변화 1974년 1992년 비교 (참고범주: 동일 범주)	두 단계 상승			.173	1.188
	한 단계 상승			.078	1.081
	한 단계 하락			-.241	.786
	두 단계 하락			-.189	.828
	무응답			-.434	0.648
부모생존 및 결혼상태 (참고범주: 부모생존/결혼)	부모생존/별거.이혼	-.352	.703	-.346	.708
	모생존	.059	1.061	.061	1.063
	부생존	.120	1.127	.114	1.121
부모의 건강	건강하지 못하다	.148	1.160	.140	1.150
부모의 교육수준		.013	1.013	.013	1.014
생존한 형제자매 수		-.116***	.891	-.117***	.889
자녀의 교육수준		.151***	1.162	.145***	1.156
자녀의 성별	여성	.093	1.097	.094	1.099
자녀의 결혼상태 (참고범주: 결혼, 초혼)	결혼, 재혼	-.076	.927	-.078	.925
	별거, 사별, 이혼	.296*	1.344	.362**	1.436
	결혼 경험 없는 독신	.767***	2.155	.742***	2.100
상수항		-3.706		-3.614	
-2 Log likelihood(model)		3200.659		3193.427	
Chi-square		245.971***		252.203***	

\*p < .05 , \*\*p < .01, \*\*\*p < .001

녀에게 금전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 연구들(McGarry, 1999; McGarry & Schoeni, 1997; Pezzin & Schone, 1999)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반면 자녀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포함된 자녀의 1974년 소득과 자녀의 소득변화 변수의 영향력은 두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첫 번째 모델을 살펴보면 자녀의 1974년 소득의 어느 범주도 금전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

았다. 두 번째 모델에서 1992년 소득이 1974년 소득에 비해서 하락한 성인자녀들 보다 상대적 소득변화가 없었던 성인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을 부모가 금전적으로 돕는다는 보상적 이타주의론의 가설을 뒷받침하던 선행연구들(McGarry & Schoeni, 1995; McGarry & Schoeni, 1997)과는 다른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른 변수들을 살펴

면 생존한 형제자매의 수, 자녀의 교육수준, 자녀의 결혼상태이다. 금전이전의 제공자인 부모와 관련된 변수들 중 부모의 소득수준 만이 두 모델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반면, 금전이전의 수혜자인 자녀와 관계된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형제자매의 수가 많으면 부모가 가진 한정된 자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한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금전이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자녀의 교육수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자녀의 교육수준과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의 관계가 정적인 관계임을 밝힌 선행연구들(Cox & Rank, 1992; McGarry, 1999; McGarry & Schoeni, 1995)을 뒷받침한다.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는 자녀의 교육수준은 부모가 자녀의 잠재적 능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때로는 교육수준이 평생소득을 측정하는 대체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 McGarry, 1999).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부모가 자녀의 잠재적 능력을 보고 미래에 되돌아 올 보상을 기대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측면에서 교환이론의 가설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는 부모가 자녀의 상급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금전이전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일 수록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기 쉽다고 볼 수도 있다.

자녀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별거, 사별, 이혼 또는 결혼경험이 없는 독신인 경우 초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 보다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녀의 소득수준이나 소득수

준의 변화보다 별거, 사별, 이혼과 같은 생애 사적 사건들이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MacDonald, 1989). 또한 결혼경험이 없는 독신인 경우 초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 보다 금전이전을 받는 경향이 2배 정도( $\exp(B)=2.155$  &  $2.100$ )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자녀의 독신상태가 부모의 소득수준 만큼 부모의 금전이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자원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제공되는 금전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금전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수들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선행연구들의 금전이전 단기측정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장기 측정된 금전이전을 분석모형에 사용하였다. 경제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현재 (1992년)의 소득을 분석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장기 측정된 금전이전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소득의 가감이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부모의 1957년 소득과 자녀의 1974년 소득을 분석모형에 사용하였다. 또한 보완적 이타주의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녀의 1974년 소득과 1992년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의 상대적 변화정도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금전이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알려진 부모와 자녀의 경제수준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른 변수들의 금전이전에 대한 영향력도 함께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금전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경제적 수준은 부모로부터의 금전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 결과 보완적 이타주의론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경제적 수준 이외에 형제자매의 수, 자녀의 교육수준, 자녀의 결혼상태가 부모로부

터 제공되는 금전이전에 영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의 수가 적을 수록,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별거, 사별, 이혼 또는 결혼경험 없이 독신인 경우 부모로부터 금전이전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 성인자녀에게 제공되는 금전이전의 측정기간을 장기화하여 선행 연구들의 단기간 측정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려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금전이전의 최저선이 미화 \$1,000 이었는데, 이 최저선 미만의 금전이전 행동은 연구에서 누락되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금전이전 활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좀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금전이전 행동의 이해를 위해서 부모로부터 성인자녀에게 주어지는 금전이전의 실제 액수, 주어진 시기, 쓰여진 용도 등도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1957년, 1974년 소득을 경제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소득 이외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변수들(자산, 주택 등)을 함께 사용할 때 부모자녀간의 금전이전에 경제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을 더 정확히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자녀의 결혼상태, 형제자매의 수 등이 부모로부터의 금전이전을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모자녀간의 금전이전이 단순히 경제적 중심으로 연구되는 것보다는 부모자녀관계 가족관계 측면의 연구도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덧붙여 부모로부터 성인자녀에게 주어지는 금전이전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형태의 금전이전에 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성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빈도가 더 높으리라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교육을 위한 정부의 장기저리대출이 보편화 되어있고, 자녀가 18세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육비를 부모에게 의존하여 충당하는 경향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모로부

터 독립을 하는 시기가 미국에 비해서 늦으며, 결혼 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현실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부모들의 성인자녀에 대한 금전이전 행동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박재간 (1990). 노후의 재산상속과 재산관리. 노인생활, 78.
- 2) Altonji, J. G. Hayashi, F. & Kotlikoff, L. J. (1992). Is the extended family altruistically linked? Direct tests using micro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2, 1177-1198.
- 3) Becker,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4) Bernheim, B. D. Shleifer, A. & Summers, L. H. (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045-1076.
- 5) Couch, K. A. Daly, M. C. & Wolf, D. A. (1999). Time? Money? Both?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o older parents. *Demography* 36(2), 219-232.
- 6) Cox, D. & Rank, M. R. (1992).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 7) Cox, 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508-546.
- 8) MacDonald, M. M. (1989). *Family Background, the Life Cycle, and Inter-household Transfers* (NSFH working paper No. 13).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 9) Macdonald, M. M. & Koh, S. (2002). Consistent motives for inter-family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forthcoming).
- 10) McGarry, K. (1999).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 intended beque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3, 321-351.
- 11) McGarry, K. & Schoeni, R. F. (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 12) McGarry, K. & Schoeni, R. F. (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s from the assetnet worth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13) Pezzin, L. E. & Schone, B. S. (1999). Parental marital disrup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 analysis of lone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Demography* 34, 297-297.
  - 14) Sabatelli, R. M. & Shehan, C. L. (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In P. G. Boss, W.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 S. K. Steinmetz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pp. 385-411). New York: Plenum Press
  - 15) Schoeni, R. (1997). Private interhousehold transfers of money and time: New empirical evidenc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 423-447.
  - 16) Soldo, B. J. & Hill, M. S. (1995). Family structure and transfer measures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Background and overview.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08-137.
  - 17) Tomes, N. (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928-968.